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37-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2023 자녀·육아인식조사]

희망하는 자녀의 수, 여아선호, 자녀양육인식 등

2023. 07. 05.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이상적인 자녀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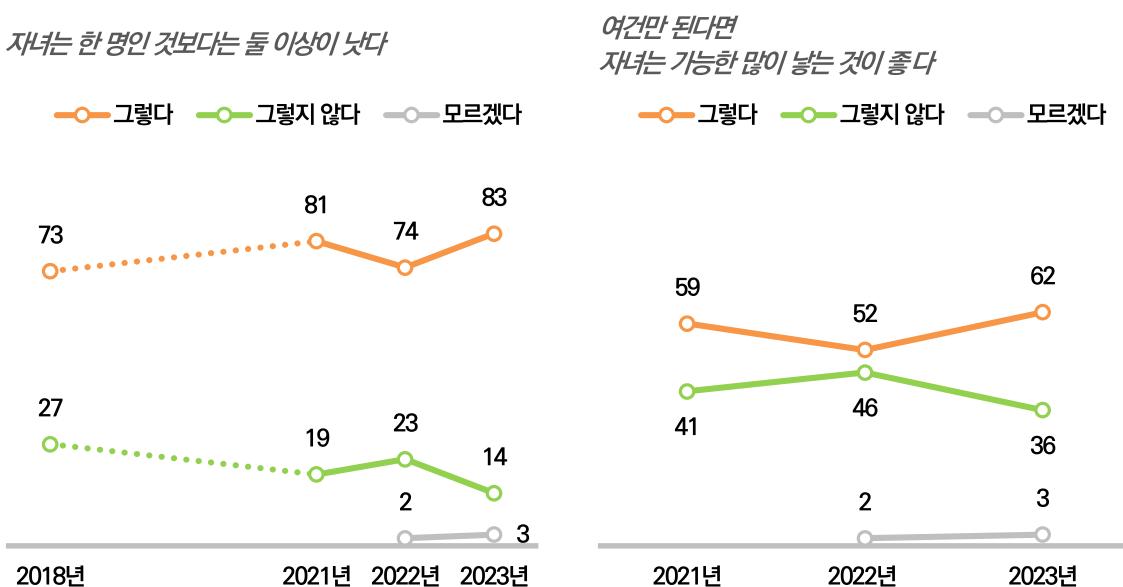
자녀는 하나인 것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 83%, 여건 된다면 자녀 많을수록 좋다 62% 모두 1년 전보다 증가

'자녀는 하나인 것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는 데 83%가 동의한다. '여건만 된다면 자녀는 가능한 많이 낳는 것이 좋다'는 데에도 62%가 동의한다. 1년 전보다 각각 9%포인트, 10%포인트 상승한 결과이다. 특히 30대의 의견이 크게 바뀌었는데, 30대에서 '자녀가 하나인 것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는 의견은 1년 전보다 26%포인트, '여건만 된다면 자녀는 가능한 많이 낳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1%포인트 상승했다.

두 명 이상 다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지되고 있다. 남녀 모두,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자녀는 한 명인 것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는 의견이 최소 69% 이상이다. 또한 미혼, 현재 자녀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70% 이상이 '자녀는 한 명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여건이 된다면 자녀는 가능한 한 많이 낳는 것이 좋다'는 데 과반 이상이 동의한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여건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는 하나인 것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 83%, 여건 된다면 자녀 많을수록 좋다 62% 모두 1년 전보다 증가

(단위 : %)



질문: 다음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비고: 2018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임. '모르겠다' 보기는 2022년 조사부터 제시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 + 어느 정도 그렇다' 응답의 합, '그렇지 않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의 합

조사기간: 2018. 4. 18. ~ 20. // 2021. 6. 4. ~ 7. // 2022. 6. 3. ~ 6. // 2023. 6. 9. ~ 12.

30대, 전년 대비 '자녀는 둘 이상이 낫다' 26%포인트, '여건만 된다면 자녀 많을수록 좋다' 21%포인트 증가
미혼, 자녀 없는 응답자들도 '자녀는 둘 이상이 낫다', '여건만 된다면 자녀 많을수록 좋다' 10%포인트 이상 증가

(단위 : %, %p)

	자녀는 한 명인 것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			여건만 된다면 자녀는 가능한 많이 낳는 것이 좋다		
	'22	'23	차이 ('23-'22)	'22	'23	차이 ('23-'22)
전체	74	83	+9	52	62	+10
성별						
남자	75	87	+12	57	70	+13
여자	74	80	+6	48	53	+5
연령						
18~29세	58	69	+11	33	38	+5
30대	48	74	+26	33	54	+21
40대	76	78	+2	57	58	+1
50대	82	86	+4	61	68	+7
60세 이상	92	96	+4	64	76	+12
성별 x 연령						
남자_18~29세	68	73	+5	37	51	+14
여자_18~29세	47	64	+17	29	23	-6
남자_30대	41	80	+39	35	65	+30
여자_30대	55	67	+12	31	42	+11
남자_40대	77	85	+8	59	65	+6
여자_40대	74	72	-2	54	51	-3
남자_50대	82	92	+10	66	80	+14
여자_50대	83	80	-3	56	57	+1
남자_60세 이상	94	97	+3	74	81	+7
여자_60세 이상	90	96	+6	56	71	+15
혼인 여부						
미혼	56	71	+15	34	45	+11
배우자 있음	85	88	+3	61	69	+8
사별/이혼	76	91	+15	60	69	+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6	91	+5	62	71	+9
자녀 없음	55	70	+15	35	45	+10

질문: 다음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자녀는 한 명인 것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 // 여건만 된다면 자녀는 가능한 많이 낳는 것이 좋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비고: 각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 + 어느 정도 그렇다' 응답의 합, '그렇지 않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의 합

조사기간: 2022. 6. 3. ~ 6. // 2023. 6. 9. ~ 12.

자녀를 둔다면, 두 명이 좋다 65%

30대 이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수 평균 '1.5명', 50대 이상에서는 평균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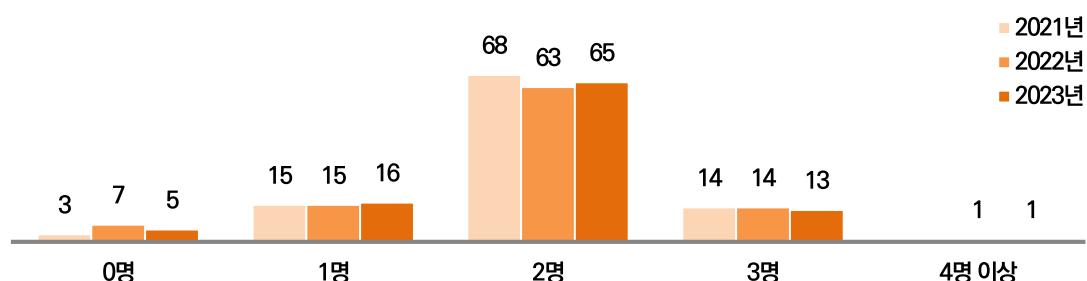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2명이 좋다는 의견이 65%로 가장 많다. 앞서 '자녀는 한 명인 것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처럼, 전체 성인남녀의 3분의 2가 자녀는 2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1명이 좋다는 의견은 16%, 3명 혹은 그 이상이 좋다는 의견은 14%이며, 전체 평균은 1.9명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30대 이하에서는 절반 정도만이 '2명'이 좋다고 생각해, 70% 이상이 '2명이 좋다'고 생각하는 40대 이상과 의견차이를 보인다. 평균으로 비교해 봄, 18~29세는 평균 1.6명, 30대는 평균 1.5명의 자녀를 두는게 좋다고 답해, 40대 이상(40대 1.9명, 50대 2.0명, 60세 이상 2.2명)과 차이를 보인다.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30대 이하에서는 두 명까지 낳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자녀를 둔다면, 두 명이 좋다 65%

30대 이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수 평균 '1.5명', 50대 이상에서는 평균 '2.0명'

(단위 : %)



2023년 조사	사례수 (명)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명)
전체	(1,000)	5	16	65	13	1	1.9
성별							
남자	(496)	3	14	68	13	2	2.0
여자	(504)	7	17	63	13	0	1.8
연령							
18~29세	(166)	11	29	54	6	1	1.6
30대	(151)	12	28	52	6	1	1.5
40대	(181)	3	15	73	8	1	1.9
50대	(194)	2	13	70	14	1	2.0
60세 이상	(308)	2	5	70	22	2	2.2

질문: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6. 4. ~ 7. // 2022. 6. 3. ~ 6. // 2023. 6.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다자녀의 조건

재산·소득, 안정된 직업, 자가소유, 다자녀의 조건이라는 인식 여전히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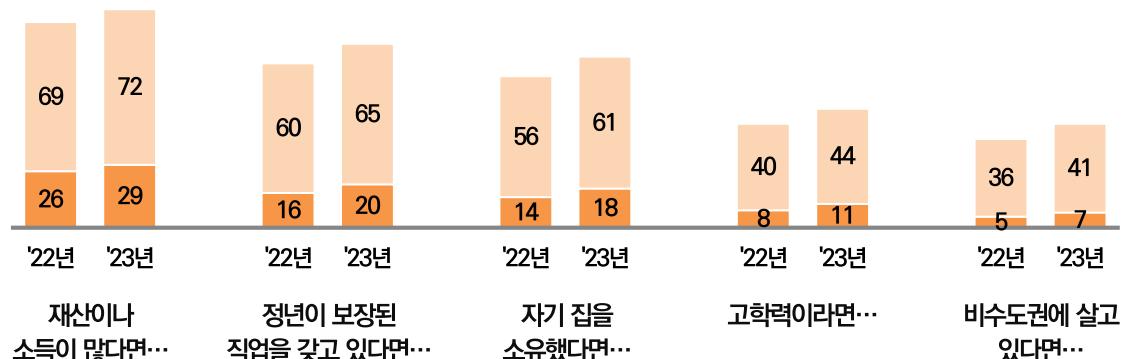
지난해에 이어, 안정적인 경제력을 다자녀의 조건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72%가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자녀를 여럿 가지는 게 좋다는데 동의한다. 65%는 '정년이 보장된 직업을 갖고 있다면', 61%는 '자기 집을 소유했다면' 자녀를 여럿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학력, 거주지역, 맞벌이/외벌이 유무, 이론 결혼 등은 다자녀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고학력(44%), 비수도권 거주(41%), 수도권 거주(41%), 맞벌이 부부(40%), 이론 결혼(38%), 외벌이 부부(31%)일 때 자녀를 여럿 가지는 게 좋다는 의견은 과반을 넘지 못한다.

재산·소득, 안정된 직업, 자가소유 등 경제적 안정을 다자녀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사람 여전히 다수

(단위 :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동의한다(전적으로+그런 편)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OOO, 자녀를 여럿 가지는 게 좋다

비고: '동의한다' 응답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 동의하는 편이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6. 3. ~ 6. // 2023. 6. 9. ~ 12.

3 여야 선호 현상, 지속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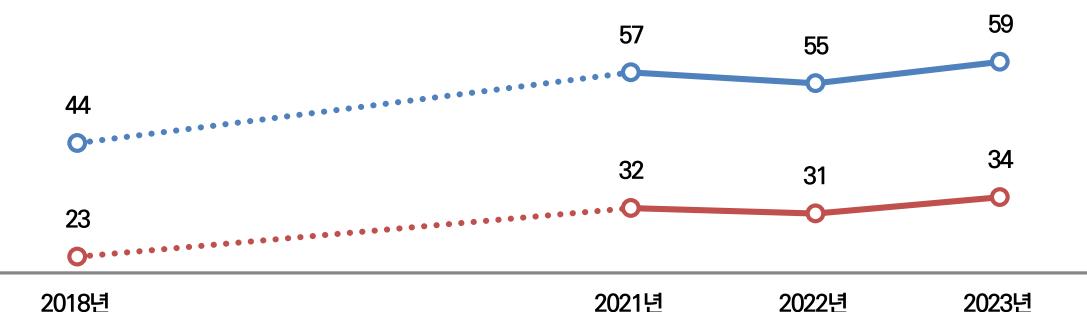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59%,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34% 딸에 대한 높은 선호도 지속되고 있어

남아선호사상은 옛 말이 되었고, 이제는 여야선호가 확고하게 우위에 있는 모습이다. 전체 응답자의 59%가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반면,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34%만이 동의한다.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2021년 이후 꾸준히 50%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성인남녀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59%,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34% 여야 선호 우위가 지속되고 있어

(단위 : %)

—●—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은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비고: 2018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대상 조사

2018년 조사는 보기를 2점 척도(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제시, 2021년부터는 4점 척도(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제시

2022년 조사부터 ‘모르겠다’를 보기에 제시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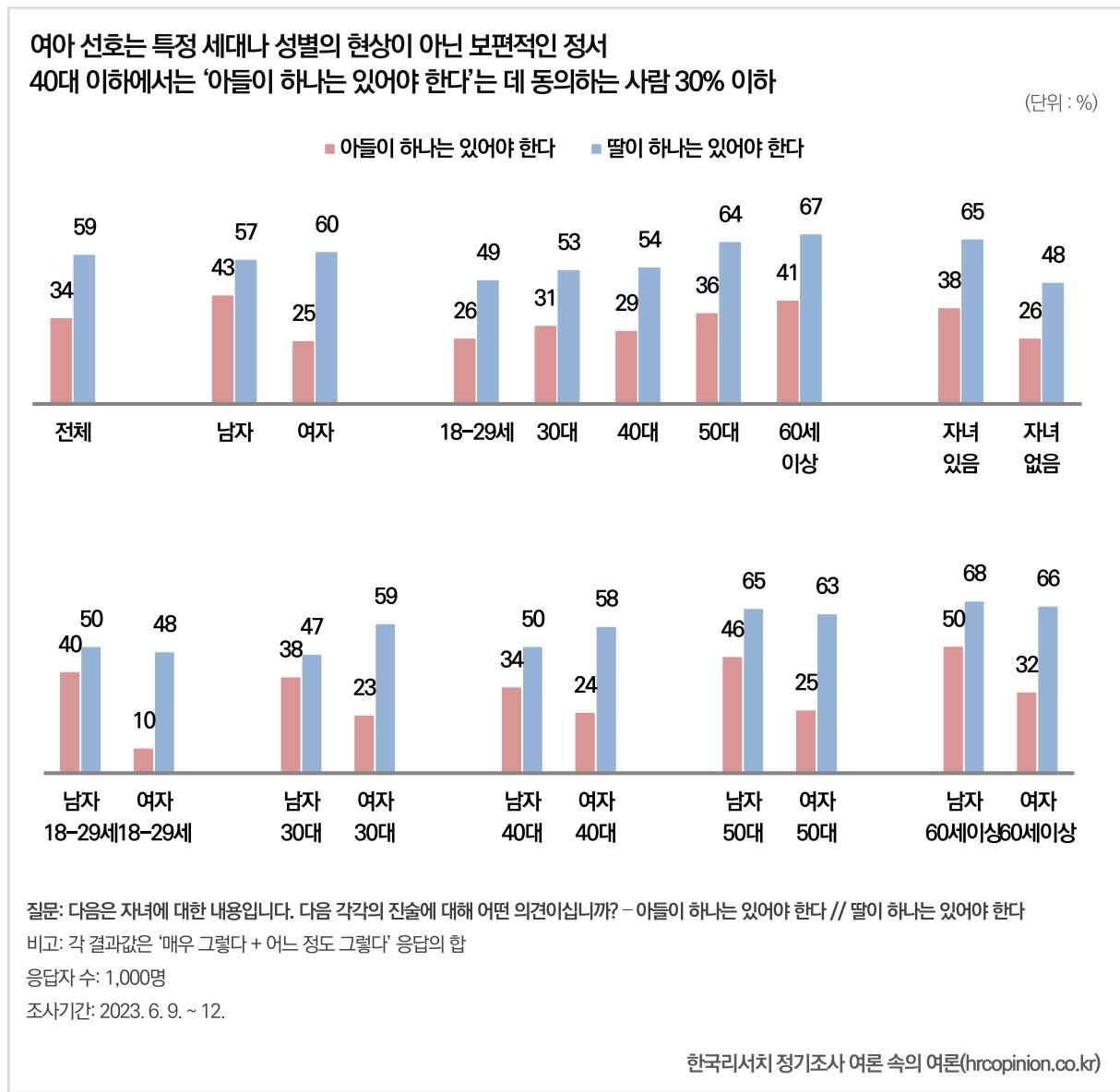
조사기간: 2018. 4. 18. ~ 20. // 2021. 6. 4. ~ 7. // 2022. 6. 3. ~ 6. // 2023. 6.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아 선호는 특정 세대나 성별의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정서 40대 이하에서는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 30% 이하

여아 선호는 일시적인 유행도 아니고, 특정 성별이나 세대가 주도하는 흐름도 아니다. 남녀 모두와 전 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확인이 된다. 남녀 모두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도 많다(18~29세 49%, 60세 이상 67%). 현재 자녀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과반(48%)은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반면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성별과 연령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절반 이하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늘어나긴 하나, 60세 이상에서도 41%만이 이에 동의한다. 특히 18~29세 여성은 10%, 30대 여성은 23%만이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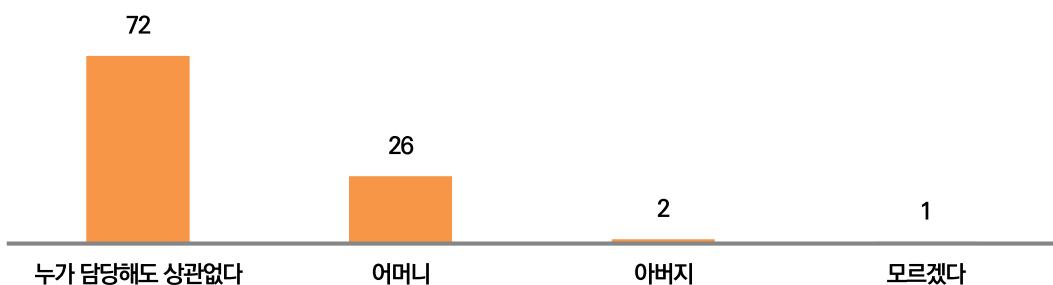
4.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아버지와 어머니 중, 자녀 양육은 누가 담당해도 상관없다 72%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체의 72%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담당을 해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어머니가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이고, 아버지가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소수(2%)에 불과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도 증가하기는 하나, 전 연령대에서 과반 이상이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자녀 양육을 담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자녀 양육을 어머니가 전담하던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모습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 자녀 양육은 누가 담당해도 상관없다 72%

(단위 : %)



연령대 높을수록 어머니가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지나,
전 연령대에서 과반 이상이 '자녀 양육은 누가 담당해도 상관없다'고 인식해

	사례수 (명)	누가 담당해도 상관없다	어머니	아버지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72	26	2	1	100
성별						
남자	(496)	71	26	2	1	100
여자	(504)	73	25	1	1	100
연령						
18~29세	(166)	90	9	1	0	100
30대	(151)	85	11	1	3	100
40대	(181)	85	15	1	0	100
50대	(194)	60	39	2	0	100
60세 이상	(308)	57	40	2	1	100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 중, 자녀의 양육을 누가 주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6. 9. ~ 12.

아버지 혼자서도 자녀 잘 키울 수 있다 53%,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 잘 키울 수 있다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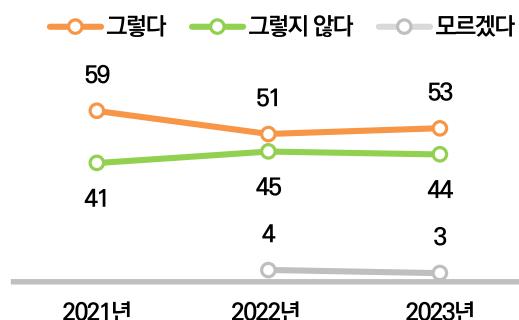
어머니, 아버지 관계없이 누가 자녀 양육을 담당해도 괜찮다고 보지만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확인된다. '아버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데에도 과반(53%)이 동의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데에는 65%가 동의한다. 아직까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이다.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데에는 남성(58%)보다는 여성(71%)이 더 많이 동의하며, 특히 40대 이하 여성 중에서는 4명 중 3명 이상이 동의한다. 40대 이하 여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아버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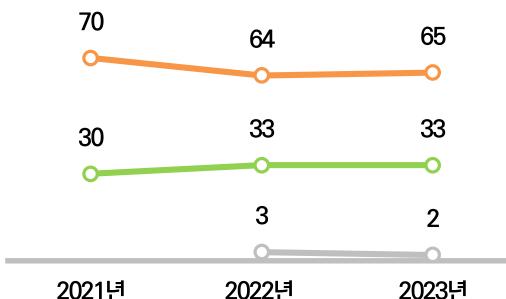
아버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53%,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65%

(단위 : %)

아버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2023년 조사결과 사례수 ('그렇다' 응답 비율)		아버지 혼자서도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전체	(1,000)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53	65		

성별

남자 (496)	52	58
여자 (504)	54	71

연령

18~29세 (166)	63	68
30대 (151)	54	62
40대 (181)	61	68
50대 (194)	48	61
60세 이상 (308)	46	6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31)	49	64
자녀 없음 (369)	59	66

2023년 조사결과 사례수 ('그렇다' 응답 비율)		아버지 혼자서도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전체	(1,000)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53	65		

성별 x 연령

남자_18~29세 (87)	58	58
여자_18~29세 (79)	69	79
남자_30대 (78)	46	50
여자_30대 (73)	62	75
남자_40대 (92)	58	59
여자_40대 (89)	64	78
남자_50대 (98)	54	61
여자_50대 (96)	42	60
남자_60세 이상 (141)	46	61
여자_60세 이상 (167)	45	68

질문: 다음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아버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비고: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 + 어느 정도 그렇다' 응답의 합, '그렇지 않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의 합
'모르겠다' 보기는 2022년 조사부터 제시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6. 4. ~ 7. // 2022. 6. 3. ~ 6. // 2023. 6. 9. ~ 12.

동성 부부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34%, 지난해에 이어 부정적 의견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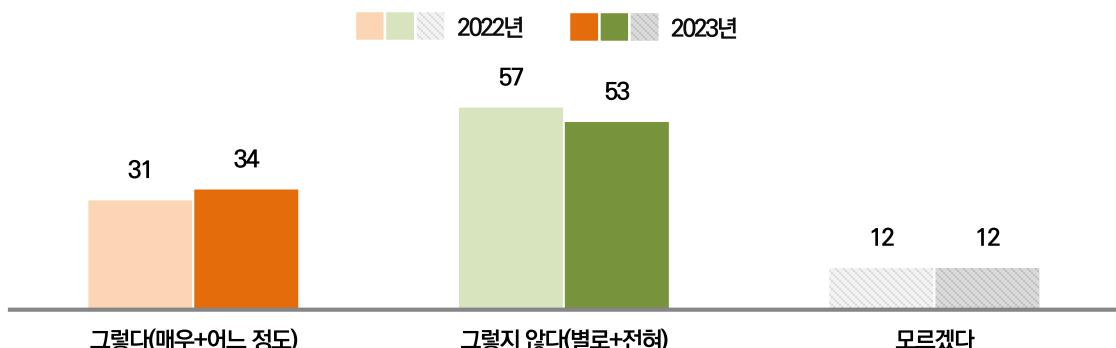
성별이 같은 동성부부의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다. 전체 응답자 중 53%가 ‘동성 부부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해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4%포인트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 이상이다. 여성(41%), 18~29세(41%), 진보층(47%)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우세하나, 긍정적인 인식이 과반을 넘지는 못한다.

[2023 결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 이상](#)이다. 동성간의 결혼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고, 더 긴밀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다.

성별이 같은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34%, 지난해에 이어 부정적 의견이 과반 이상
연령대 높을수록 동성 부부의 자녀 양육 부정적이라는 의견 높아

(단위: %)

동성 부부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2023년 조사결과	사례수 (명)	그렇다 (매우+ 어느 정도)			모르겠다	계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4	53	12	100	
성별						
남자	(496)	27	61	11	100	
여자	(504)	41	46	13	100	
연령						
18~29세	(166)	41	46	13	100	
30대	(151)	37	49	14	100	
40대	(181)	36	51	12	100	
50대	(194)	31	55	14	100	
60세 이상	(308)	29	60	10	100	

2023년 조사결과	사례수 (명)	그렇다 (매우+ 어느 정도)			모르겠다	계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4	53	12	100	
이념성향						
진보층	(275)	47	43	10	100	
중도층	(346)	33	53	14	100	
보수층	(332)	26	64	10	100	
자녀유무						
있음	(631)	31	58	11	100	
없음	(369)	40	46	14	100	

질문: 다음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동성 부부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6. 3. ~ 6. // 2023. 6. 9. ~ 12.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3년 6월 기준 약 88만여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7,431명, 조사참여 1,32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5%, 참여대비 75.3%)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3년 6월 9일 ~ 6월 12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